

## 다차원 지지와 행복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sup>†</sup>

신 동 윤  
경기대학교  
지식정보서비스대학  
청소년학전공 겸임교수

최 은 정  
경기대학교 대학원  
청소년학과 박사수료

김 청 송<sup>‡</sup>  
경기대학교  
지식정보서비스대학  
청소년학전공 교수

본 연구는 청소년의 다차원 지지와 행복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지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에 위치한 남녀 청소년 339명의 자료를 SPSS 18.0 통계로 단순 회귀분석법을 적용해 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차원 지지 행복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부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행복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부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사의 정서적 지지가 행복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을 완전매개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모 및 교사의 정서적 지지와 만족을 세분화 하여 자아존중감과 함께 고려하여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및 교사와 같은 긍정적인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와 만족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 부모 및 교사들의 다차원 지지를 높여주고, 본인에게 부여하여 가치 있는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줌으로써 행복감을 높여 일상생활의 적응을 도와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다차원 지지, 자아존중감, 행복

<sup>†</sup> 본 연구는 2018년 경기대학교 대학원 연구원장학생 장학금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청송, (3111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광고산로 154-42 경기대학교 휴먼서비스학부 청소년학전공 교수, Tel: 031-249-9367, E-mail: drcsk@kyonggi.ac.kr

인간은 누구나 행복과 성장을 추구하는 존재로 행복하다고 느끼거나 만족하는 상태에 있기를 희망한다. 또한 인격적인 관계를 희망하기 때문에 타인과 주고받는 따뜻한 지지적인 관계에서 행복을 발견하기도 한다. 특히 청소년들은 부모, 교사, 또래와 같이 친근하고 가까운 타인으로부터 받는 관심과 배려, 위안과 공감, 돌봄 등의 정서적 지지를 경험할 때 자기의 삶에서 행복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친밀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대인관계 발달은 태내 출생 이후부터 청소년기까지 이어지며, 이때 형성된 긍정적인 대인관계는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발달 과업이 된다(신동운, 2018; 이희자, 김경원, 2000).

최근 들어 행복(happiness)과 관련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면서 다양한 연령층과 대상으로 연구 범위가 확대되었고, 청소년의 행복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이 스스로 판단하는 주관적인 삶의 만족과 긍정적 정서 증진은 건강한 발달의 주요 지표임과 동시에 여타 긍정적 결과에 공헌한다(Park, 2004; 신주연, 이윤아, 이기학, 2005 재인용). 하지만 행복에 관해 일치된 정의는 없어 보통은 행복감,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괴로움이 없는 상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신동운, 2018). 그러나 행복은 행복에 대한 느낌, 즉 행복감(feeling of happiness)이라고 전제하며(김청송, 2018; 김홍순, 송민경, 김청송, 2012), Diner(1984)는 조작적 정의를 통해 행복을 주관적 안녕감으로 제안하고 측정이 가능한 현상으로 구체화하였다. Algytle(2001)는 행복을 긍정적인 정서 상태에서 자신의 삶에서 만족감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Seligman(2004)은 행복을 각자의 삶에서 긍정적 성품을 발견하여 삶의 중요한 영

역에 활용함으로써 만족과 행복감을 얻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행복은 자신의 삶에서 각자가 느끼는 것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고 그것에 만족하여 기쁨을 느끼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Vitrano, 2006). 또한 청소년기의 생활 중심은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져 사회적 환경이 확대되고, 부모와 교사 등의 영향을 받아 성격이나 사회적으로 발달을 하게 된다(유미숙, 정계숙, 박수홍, 차지량, 홍광표, 2013).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긍정적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Maslow, 1971)에 근거한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명수정, 2011).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란 긍정 혹은 애정, 도움의 요소 중 하나 이상의 요소가 포함된 대인관계로 정의되기도 하며(Kahn & Antonucci, 1980; 박희수, 문승연, 2014 재인용), 여기에는 한 사람이 타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자원인 사랑, 존중, 수용, 인정, 상징적 혹은 실질적 도움 등을 포함한다(Cohen & Hoberman, 1983). 그러기에 친밀한 타인들과 상호작용하는 대인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지지적인 관계 혹은 다차원 구성체로 이해된다(Thompson, Flood, & Goodvin, 2006). 특히 정서적 지지는 청소년의 행복과 적응에 영향력을 미치는 밀접하고 친밀한 대인관계를 세밀하게 살피는 데 유용한 개념으로 다차원 지지로 연구되기도 한다(김지은, 1998; 신동운, 2018). 또한 정서적 지지는 청소년의 긍정적이고 밀접한 대인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파악하는데 중요하다.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 지지는 따뜻하고 안정적이며, 사랑과 배려로 청소년들이 이와 같은 유대감을 통해 가족 밖의 세상을 탐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안전감을 제공한다(Barber, 1997). 세상일에 번거롭고 삶에 지칠 때, 손을 잡고 품어주며, 고단한 일상을 다독거리며 변함없는 격려와 지지 속에서 함께 걸어가는 게 바로 부모 이기에(차은미, 문민경, 신동윤, 2017) 대표적인 사회적 지지 자원이 된다. 반면에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부족하면 낮은 자아존중감, 충동적인 행동, 낮은 학업성취, 우울, 사회부적응, 이탈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과 같은 비행과도 관련이 있다(Khaleque, 2013). 또한 부모와 친밀하지 못한 관계를 성장 과정에서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면 그들의 자녀와 상호작용에서 결함을 보이기도 한다(정옥분, 정순화, 2016).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학생과 교사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이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Pianta, 1999; Thompson, 1994; 김종백, 김남희, 2014 재인용). 그래서 부모 다음으로 밀접하게 상호작용한 성인은 바로 교사다. 교사의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도 높다는 오순옥(2006) 연구 결과처럼 학생에 대한 교사의 정서적 지지나 관심이 중요해졌다. 교사는 학생에 대한 이해와 공감함을 통해 정서적으로 보살펴주는 동반자의 역할과 함께 부모의 불안정한 애착에서 오는 모자람, 상실감 등을 보완하거나 학교생활 적응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김애경, 김성봉, 2018). 이에 훌륭한 교사는 학생으로 하여금 서로 신뢰감을 형성하고, 자신감을 갖도록 지지하며, 자아존중감을 높여주고(Erikson, 1968; 신명희 외, 2017 재인용), 차별과 따돌림의 피해를 낮추어 심리·사회적 적응을 촉진시킨다(이유신, 김한성, 2014). 이처럼 학생과 교사의 밀접하고 친근한 관계는 상호 신

뢰와 지지를 공유하는 심리적 공간으로 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질이 외부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압력들로부터 학생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버퍼(buffer)가 되어 준다(Hamre & Pianta, 2006; 김종백, 김남희, 2014 재인용). 교사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심리적 공간은 학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든든한 영향력이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가 행복에 영향을 준다(이희숙, 2013; 정윤미, 2014)는 연구를 비롯하여 장은영(2016)은 부모 지지, 교사 지지, 또래 지지가 높을수록 행복은 증가했고, 영향력은 부모, 교사, 또래 순으로 이라고 하였다. 김명숙(1995)은 부모와의 친밀하고 긍정적인 정서적 지지는 행복과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며,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청소년기 삶의 만족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ng, Huebner, & Valois, 2006). 또한 부모관계가 친밀할수록 주관적 행복감은 높고(정혜숙, 김영희, 2014), 과도한 성취압력을 받지 않고, 부모로부터 공감적 이해와 자율성을 존중받을수록 만족과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송미라, 한기백, 2015). 또한 이미리(2003)의 연구에서 중학생은 교사와 함께 한다고 인식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강조하였고, 교사가 학생에게 자율적인 판단과 결정, 행동을 권장하면 내재적 동기와 심리적 안녕감이 증진된다는 연구도 있다(Jang, Reeve, Ryan, & Kim, 2009).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요인들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자아존중감(self-esteem)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 보고되고 있다.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을 자아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 판단으로 자신의 능

력, 가치, 성공, 소중함 등에 대해 스스로 어느 정도 믿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며, Harter(1999)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라고 하였다(김청송, 2014 재인용). 그래서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 혹은 부정적인 정서적인 측면의 평가(Rosenberg, 1965) 혹은 감정적 반응이며, 자신에 대한 자각이라는 측면에서 행복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청소년 관련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주목받는 이유는 발달단계상 자아존중감은 자아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예측변인과 결과변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김청송, 2017). 이런 이유로 자아존중감은 일관되게 행복과 삶의 만족을 예측하는 강력한 예측변인(Baumgardner & Crothers, 2013)으로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인지적, 심리·사회적 어려움이나 도전으로부터 보호해 준다(소선숙, 김청송, 2016; DuBois & Hirsch, 2000). 따라서 높은 자아존중감이 형성되면 생활영역 전반에서 자신감과 더불어 자신이 가치 있다고 판단하여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반면에 낮은 자아존중감이 형성되면 열등감과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을 느낀다(김청송, 2014).

자아존중감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주관적 행복에 직접 영향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전혜진, 유미숙, 2015), 중학생의 삶의 만족과 행복은 높은 자아존중감 및 자기개념과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와 관련이 있고, 고등학생은 높은 자아존중감과 자기개념, 관계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미, 전성희, 유미숙, 2010). 학년이 낮으면 부모의 관심과 수용, 정서적 지지 등과 연관되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또래나 교사로부터

지지적인 관계를 통해 자아존중감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밀접하고 친밀한 대인관계와 행복 간의 관계를 매개하여 그 관계를 강화하는 예측변인임을 확인한 연구도 있다(Cheng & Furnham, 2014). 이에 청소년들이 부모와 교사로부터 사랑, 보호, 수용 등의 정서적 지지를 빈번하게 주고받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져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감이 향상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거나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평가이기 때문에 개인내적 환경과 의미 있는 타인들의 사회적 지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부모 및 교사의 정서적 지지와 만족으로 구성된 다차원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부정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행복을 고양시킨다는 사실을 볼 때 각 변인 간에는 서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사회적 지지라는 통합된 변인으로 행복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으로 묶인 사회적 지지를 해체하여 부모 및 교사의 정서적 지지와 만족이라는 핵심적인 요소와 친밀한 대인관계의 질을 의미 있는 변인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김지은(1998)의 연구에서 사용된 다차원 지지 척도를 이용하여 부모 및 교사의 정서적 지지와 만족과 행복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다차원 지지와 자아존중감, 행복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다.

연구가설 2. 다차원 지지 및 하위변인과 행복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 방 법

### 참여자

본 연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남녀 청소년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그중에서 불성실한 응답 11부를 제외하고 최종 33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140명(41.3%)이었고, 여학생은 199명(58.7%)이었다. 범위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로 참여자의 성별과 학교별 빈도 분석은 표 1과 같다.

###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부모 및 교사의 정서적 지지와

만족 전체를 포함하는 다차원 지지와 행복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인은 다차원 지지 척도를 활용하고 종속변인은 행복 척도를, 매개변인은 자아존중감 척도로 선정하였다.

**다차원 지지.** 청소년의 다차원 지지는 김지은(1998)이 부모와 교사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부모와 교사의 정서적 지지와 만족으로 구분되어 있다(반포종합사회복지관, 실천사회복지연구회, 2015).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만족(정서적 지지 7문항과 만족도 7문항)은 Likert 3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최저 14점에서 최고 21점까지 분포된다. 또한 교사의 정서적 지지와 만족(정서적 지지 6문항과 만족도 6문항)은 Likert 3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최저 6점에서 최고 18점까지 분포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교사의 정서적 지지가 높고 만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지은(1998)의 연구에서

표 1.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339)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140	41.3
	여자	199	58.7
	<b>합계</b>	<b>339</b>	<b>100</b>
학년	초등5학년	36	10.6
	초등6학년	83	24.5
	<b>소계</b>	<b>119</b>	<b>35.1</b>
	중등1학년	31	9.1
	중등2학년	46	13.6
	중등3학년	8	2.4
	<b>소계</b>	<b>85</b>	<b>25.1</b>
	고등1학년	40	11.8
	고등2학년	95	28.0
<b>소계</b>	<b>135</b>	<b>39.8</b>	

Cronbach's  $\alpha$ 는 .905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34(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만족 .936, 교사의 정서적 지지와 만족 .940)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척도는 Rosenberg(1965)가 개발한 척도(RSE)를 오승환(2001)이 사용한 Likert 5점 척도로 총 10문항이다. 자아존중감의 채점은 부정적인 문항 5문항(3, 5, 8, 9, 10번)을 역채점으로 변환하고 긍정적인 5문항과 합산한 다음 계산을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승환(200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76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67(긍정문항 .838, 부정문항 .824)로 나타났다.

**행복.**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서 구재선과 서은국(2011)이 개발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단축형 행복 척도(COMOSWB)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삶의 만족(3문항), 긍정적 정서(3문항), 부정적 정서(3문항)의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7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에서 '매우 그렇다'에 7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더 행복한 것을 의미한다. 구재선과 서은국(201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6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부정정서는 낮은 신뢰도를 보였는데 이는 참여자 간 느끼는 부정정서의 강도 차가 큰 것으로 예측되며,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9번 문항을 제외하였다. 전체 Cronbach's  $\alpha$ 는 .606(삶의 만족 .642, 긍정 정서 문항 .911, 부정 정서문항 .787)로 나타났다.

## 절차

본 연구는 수도권에 위치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학년 주임 교사가 설문에 참여할 학생들의 동의를 얻은 후 연구자들이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의의, 설문방법을 설명하고 10분 정도에 걸쳐 작성한 다음 직접 설문지를 회수하거나 담임교사가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작성한 후 완성된 설문지를 연구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회수된 350부 중 누락이나 측정이 불가능한 11부를 제외하고 최종 339부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먼저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통하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설문 문항의 문항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alpha$ 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다차원 지지와 행복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의 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3단계 매개회귀분석)를 통계적 방법론으로 활용하였고, 매개효과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 결 과

### 기술통계

측정변인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척도에 따라 평균( $M$ )과 산포도의 표준편차( $SD$ ),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정규분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확인한(West, Finch, & Curran, 1995) 기술통계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다차원 지지의 최대값은 6점에  $M=4.94$ 점( $\pm 0.81$ ), 자아존중감의 최대값은 5점에  $M=3.74$ 점( $\pm 0.69$ ), 행복의 최대값은  $M=5.12$ 점( $\pm 0.78$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차원 지

지 변인에서는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만족이 행복 변인에서는 긍정 정서가 조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측정변인들의 왜도, 첨도 수치 모두가 절대값 1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정규성에 위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상관분석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다차원 지지(부모 정서적 지지, 교사 정서적 지지), 행복 및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각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은 모

표 2.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 $N=339$ )

변인	구분	최소값	최대값	$M (SD)$	왜도	첨도
다차원 지지	부모	2.00	6.00	5.10(.88)	-.937	.428
	교사	2.00	6.00	4.79(.96)	-.598	-.099
	전체	2.32	6.00	4.94(.75)	-.515	-.274
자아존중감		1.00	5.00	3.74(.69)	-.163	-.484
행복	삶 만족	1.00	7.00	5.40(1.26)	-.616	.191
	긍정정서	2.00	7.00	5.48(1.22)	-.522	-.206
	부정정서	1.00	7.00	4.15(1.40)	-.132	-.265
	소계	2.63	7.00	5.12(.78)	-.330	-.086

표 3. 측정변인의 상관분석 결과

( $N=339$ )

	A	B	C	D	E
A	1				
B	.791***	1			
C	.830***	.316***	1		
D	.352***	.428***	.156***	1	
E	.314***	.355***	.164***	.505***	1

A. 다차원 지지 B. 부모 정서적 지지와 만족  
C. 교사 정서적 지지와 만족  
D. 자아존중감 E. 행복

\*\*\* $p < .001$ .

두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각 측정변인 상관의 정도는  $r=.156$ 부터  $r=.830$ 까지로 나타났고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 다차원 지지와 행복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다차원 지지와 행복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행복을 종속변인으로 매개변인을 자아존중감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이에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제 1단계 회귀방정식에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제 2단계 회귀방정식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제 3단계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은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회귀계수를 비교할 때 제

3단계 방정식의 독립변인 회귀계수 값이 2단계 회귀방정식보다 작아야 한다. 이 단계의 회귀방정식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수준으로 감소하면 완전매개효과가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으며,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그리고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종속변인 관계가 같이 존재하여 독립변인이 유의하면 부분매개효과가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다차원 지지가 행복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단순 회귀분석(Enter)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제시된 결과를 보면, 모형 1에서 독립변인 다차원 지지에 대해 매개변인 자아존중감,  $\beta=.352, p<.001$ , 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모형 2에서 독립변인 다차원 지지에 대해 종속변인 행복  $\beta=.314, p<.001$ , 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모형 3에서 다차원 지지와 자아존중감을 동시에 투입하여 종속변인 행복  $\beta=.450, p<.001$ , 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독립변인의  $\beta$ 값이 최초 .352에서 .155( $p<.001$ )로 감소

표 4. 다차원 지지와 행복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자아존중감(모형1)			행복(모형2)			행복(모형3)		
	$\beta$	$t$	$p$	$\beta$	$t$	$p$	$\beta$	$t$	$p$	$\beta$	$t$	$p$
상수		8.981	.000		12.522	.000		8.544	.000			
다차원 지지	.352	6.906	.000	.314	6.071	.000	.155	3.134	.002			
자아존중감							.450	9.081	.000			
R <sup>2</sup>		.124			.099			.276				
Adj.R <sup>2</sup>		.121			.096			.272				
F-value		47.696			36.853			64.109				
$p$		.000			.000			.000				
경로			간접효과			Sobel test			$p$			
다차원 지지 → 행복												
다차원 지지 → 자아존중감 → 행복			.158			5.080			.000			

\*\* $p<.01$ , \*\*\* $p<.001$ .



하였다. 또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그리고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종속변인 관계가 같이 존재하고 유의하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은 다차원 지지와 행복과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었다. 끝으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의 매개변인의 영향력을 간명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1단계 B값과 .336과 표준오차 값 .055 3단계 B값과 .520과 표준오차 값 .057을 넣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는  $Z=5.080, p<.001$ 이었다. Sobel test 값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매개효과가 유의하다 (김영호, 김영기, 2013). 따라서 매개효과도 있고 Sobel test도 유의하였다.

**부모의 정서적 지지, 만족과 행복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

다차원 지지 하위변인인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만족과 행복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단순 회귀분석(Enter)을 실

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제시된 결과를 보면, 모형 1에서 독립변인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만족에 대해 매개변인 자아존중감  $\beta=.428, p<.001$ , 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모형 2에서 독립변인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만족에 대해 종속변인 행복  $\beta=.355, p<.001$ , 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모형 3에서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만족과 자아존중감을 동시에 투입하여 종속변인 행복  $\beta=.432, p<.001$ , 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독립변인의  $\beta$ 값이 최초 .428에서 .170( $p<.01$ )로 감소하였다.

또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그리고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종속변인 관계가 같이 존재하고 유의하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만족과 행복과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었다. 끝으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의 매개변인의 영향력을 간명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1단계 B 값과 .338과 표준오차 값 .039 3단계 B값과 .500과 표준오차 값 .059을 넣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6.060, p<.001$ 이었다. 따라서 매개효과도 있

표 5.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만족과 행복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자아존중감(모형1)			행복(모형2)			행복(모형3)		
		$\beta$	t	p	$\beta$	t	p	$\beta$	t	p
상수			10.029	.000		14.507	.000		9.950	.000
부모 정서적 지지와 만족		.428	8.702	.000	.355	6.967	.000	.170	3.308	.001
자아존중감								.432	8.431	.000
	R <sup>2</sup>		.183			.126			.279	
	Adj.R <sup>2</sup>		.181			.123			.274	
	F-value		75.726			48.542			64.806	
	p		.000			.000			.000	
	경로				간접효과		Sobel test		p	
	부모 정서적 지지와 만족 → 행복									
	부모 정서적 지지와 만족 → 자아존중감 → 행복				0.185		6.060		.000	

\*\* $p<.01$ , \*\*\* $p<.001$ .

표 6. 교사의 정서적 지지와 만족과 행복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자아존중감(모형1)			행복(모형2)			행복(모형3)		
	$\beta$	<i>t</i>	<i>p</i>	$\beta$	<i>t</i>	<i>p</i>	$\beta$	<i>t</i>	<i>p</i>	$\beta$	<i>t</i>	<i>p</i>
상수		16.921	.000		20.532	.000		10.294	.000			
교사 정서적 지지와 만족	.156	2.896	.004	.164	3.045	.003	.087	1.836	.067			
자아존중감							.491	10.361	.000			
R <sup>2</sup>		.024			.027			.262				
Adj.R <sup>2</sup>		.021			.024			.258				
F-value		8.385			9.272			59.777				
<i>p</i>		.004			.003			.000				
		경로			간접효과			Sobel test			<i>p</i>	
		교사 정서적 지지와 만족→자아존중감→행복			.077			2.767			.000	

\*\**p*<.01, \*\*\**p*<.001.

고 Sobel test도 유의하였다.

### 교사의 정서적 지지, 만족과 행복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다차원 지지 하위변인인 교사의 정서적 지지와 만족과 행복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단순 회귀분석(Enter)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제시된 결과를 보면, 모형 1에서 독립변인 교사의 정서적 지지와 만족에 대해 매개변인 자아존중감  $\beta$ .156, *p*<.01, 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모형 2에서 독립변인 교사의 정서적 지지와 만족에 대해 종속변인 행복  $\beta$ .164, *p*<.01, 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모형 3에서 교사의 정서적 지지와 만족과 자아존중감을 동시에 투입하여 종속변인 행복  $\beta$ .491, *p*<.001, 은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독립변인의  $\beta$ 값이 최초 .156에서 .087(*p*<.01)로 감소하였다. 또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종속변인 관계만 존재하고 유의

하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은 교사의 정서적 지지와 만족과 행복과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효과가 있었다. 끝으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의 매개변인의 영향력을 간명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1단계 B값과 .112과 표준오차 값 .039 3단계 B값과 .568과 표준오차 값 .055을 넣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2.767, *p*<.001이었다. 따라서 매개효과도 있고 Sobel test도 유의하였다.

###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다차원 지지와 행복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연구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수도권에 위치한 초·중·고등학교 남녀 청소년 350명을 대상으로 질문을 실시하였으며, 자료 처리는 SPSS 18.0 통계를 활용하여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과 주요변인의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 및 평균, 중앙치, 표준편차를 포함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차원 지지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단순 회귀분석(Enter)에 의한 매개효과검증과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각 변인들 간의 상관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p < .01$ . 이는 자아존중감은 대학생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지지 역시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박희수와 문승연(2014), 장은영(2016)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특히 Gilligan과 Huebner(2002)의 연구처럼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클수록 행복감이 높고, 지각하는 수준이 낮을수록 스트레스와 부적응을 경험한다는 연구결과와 같이 사회적 지지와 행복 사이에는 보통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다차원 지지로 볼 수 있는 부모와 교사의 정서적 지지와 만족, 행복 및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부모 및 교사의 정서적 지지와 만족 전체를 포함하는 다차원 지지와 행복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단순 회귀분석(Enter)으로 확인한 결과, 모든 단계에서 유의하였고, 마지막에서는 다차원 지지에서 행복으로 직접효과  $\beta = .155$ ,  $p < .01$ , 가 낮아졌지만 유의한 영향을 보이고 있어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변인의 영향력을 간명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는  $Z = 5.080$ ,  $p$

$< .001$ 로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행복에 긍정적인 대인관계가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밝힌 전기숙(2016)과 동일한 결과로, 부모 및 교사와 같이 긍정적이고 밀접한 타인들로부터 주고받는 정서적 지지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며, 행복을 높이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다차원 지지의 하위변인인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만족과 행복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단순 회귀분석(Enter)으로 확인한 결과, 모든 단계에서 유의하였고, 마지막에서는 부모의 정서적 지지에서 행복으로 직접효과  $\beta = .170$ ,  $p < .01$ , 가 낮아졌지만 유의한 영향을 보이고 있어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변인의 영향력을 간명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는  $Z = 6.060$ ,  $p < .001$ 로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는 이희숙(2013)과 장은영(2016)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로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행복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입증한 것이다. 따라서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어 사회적 지지가 클수록 자기에 대한 존중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부모-자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미리(2003)의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넷째, 다차원 지지의 하위변인인 교사의 정서적 지지와 만족과 행복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단순 회귀분석(Enter)으로 확인한 결과, 모든 단계에서 유의하였고, 마지막에서는 교사의 정서적 지지에서 행복으로 직접효과가 유의한 영향이 없어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변인의 영향력을 간명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는  $Z = 6.060$ ,  $p < .001$ 로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는 교사 지지

와 행복과의 관계가 자아존중감에 의해 매개되는 지 검증한 장은영(2016)과 동일한 결과로 교사는 청소년들의 감정을 이해해 주고, 수용과 인정 등의 친밀하고 지지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높여 행복감을 고취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다차원 지지와 행복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 함의를 지닌다. 청소년의 행복과 관련해서 부모의 양육방식이나 자녀와의 관계, 교사나 또래의 지지, 정보 및 물질적 제공 등과 같은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 및 교사와 같이 친밀하고 밀접한 타인들의 정서적 지지와 만족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작용하는지 밝히기 위해 세분하고 단순화 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여기에 자아존중감의 유효함을 밝혔다. 다음으로 독립변인인 다차원 지지와 하위변인인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행복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부분 매개변인이라는 결과는 현재 운영되는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이 효과적이고 의미 있게 운영될 수 있는 제언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소 작은 영향력을 보여 주고 있지만 매개효과의 유의성이 검증된 교사의 정서적 지지는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들과 대면하는 교사들에게 시사해 주는 것은 크다. 따라서 진로, 학업 또는 가족, 또래관계 등의 다양한 고민을 경험하는 그들과 함께할 때는 통제적인 방식과 명령형태보다는 존중과 자율 및 지지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참여자를 경기 지역에 위치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진행되었으므로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자기보고방식으로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결과를 측정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의 응답태도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교사보고, 면담 등을 실시하여 결과의 타당성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

## 참 고 문 헌

- 구재선, 서은국 (2011). 단축형 행복 척도(COMOSWB)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1), 96-114.
- 김경호, 김영기 (2013).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기부자의 신뢰가 기부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 몰입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62, 7-34.
- 김명숙 (1995).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애경, 김성봉 (2018). 청소년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교사애착,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5(10), 273-297.
- 김종백, 김남희 (2014). 교사와 학생이 지각한 학생-교사 관계의 변화가 학생의 학교행복과 수업참여를 매개로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1(12), 285-315.
- 김지은 (1998). 청소년의 재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청송 (2014). 가족기능과 청소년 분노반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 청소년학연구, 21(3), 385-407.
- 김청송 (2017). 인간발달과 자기이해. 경기: 싸이북스.

- 김청송 (2018).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행복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5(4), 177-197.
- 김홍순, 송민경, 김청송 (2012). 청소년의 행복과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에서 감사성향과 사회적 지지의 중재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7(1), 253-270.
- 맹수정 (2011). 중학생의 행복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학업성취 및 낙관성의 효과.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문종원 (2013). 외로움 안아주기. 서울: 바오로딸.
- 박희수, 문승연 (2014).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 *한국자치행정학보*, 28(3), 197-218.
-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서울대학교 실천사회복지연구회 (2015). 실천가와 연구자를 위한 사회복지 척도집. 제2판. 서울: 나눔의 집.
- 소선숙, 김청송 (2016).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과 학교 적응의 보호요인 및 위협요인 연구. *청소년학연구*, 23(7), 375-400.
- 송미라, 한기백 (2015). 과학고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 태도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학업적 자기 효능감과 또래관계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4), 93-111.
- 신동윤 (2018). 이주배경 청소년의 정서적 지지와 행복과의 관계: 부적응적 사고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명희, 서은희, 송수지, 김은경, 원영실, 노원경, 김정인, 강소연, 임호용 (2017). 발달심리학 2판. 서울: 학지사.
- 신주연, 이윤아, 이기학 (2005). 삶의 의미와 정서조절 양식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치료*, 17(4), 1035-1057.
- 신미, 전성희, 유미숙 (2013). 청소년의 삶의 만족과 안녕에 관한 요인연구. *한국청소년학회 학회지*, 17(9), 131-150
- 이미리 (2003). 청소년기 행복감 수준의 일상 맥락 변화에 따른 다양성.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6(4), 193-209.
- 오승환 (2001). 저소득 결손가족 청소년의 적응 결정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오순옥 (2006). 사회적지지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미숙, 정계숙, 박수홍, 차지량, 홍광표 (2013). 아동 및 청소년이 지각하는 행복에 대한 인식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3), 15-26.
- 이유신, 김한성 (2014).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의 차별경험과 학교생활부적응: 교사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9, 263-282.
- 이희숙 (2013).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고등학생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희자, 김경원 (2000).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9(3), 283-295.
- 장은영 (2016).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내재적 학습동기 및 행복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기숙 (2016). 청소년의 행복 요인 탐색. *청소년학연구*, 23(10), 411-429.
- 전혜진, 유미숙 (2015).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및 미시체계 변인의 경로 분석. *청소년학연구*, 22(6), 75-104.
- 정옥분, 정순화 (2016). 부모교육 2판. 서울: 학지사.
- 정윤미 (2014). 학생-교사 애착관계가 학급풍토 및 학교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혜숙, 김영희 (2014). 아동이 지각한 행복 결정요인: 심리특성·사회활동·관계적 요인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1(7), 89-118.
- 차은미, 문민경, 신동윤 (2017). 좋은 부모되기 시민운동: 2017 수원시 좋은 부모상(像) 실태조사. 경기: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 Argyle, M. (2001). *The Psychology of Happiness*. New York: Taylor & Francis Inc.

- Barber, B. K. (1997). Introduction: Adolescent socialization in context—the role of connection, regulation and autonomy in the family.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1), 5–11.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aumgardner, S. R., & Crothers, M. K. (2013). 긍정심리학 *Positive Psychology*: (안신호, 이진환, 신현정, 홍창희, 정영숙, 이재식, 서수균, 김비아 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Cheng, H., & Furnham, A. (2014). The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Social–Economic Conditions, Childhood Intelligence, Adult Personality Traits, Social Status and Mental Well-Being.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117*(2), 653–664.
- Cohen, S., &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9–125.
- Coopersmith, S. (1967).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 Gilligan, T. D., & Huebner, E. S. (2002). Multidimensional life satisfaction reports of adolescents: a multitrait-multimethod stud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2*(7), 1149–1155.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6*(3), 542–575.
- DuBois, D. L., & Hirsch, B. J. (2000). Self-esteem in early adolescents: From stock character to marquee attraction.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0*(1), 5–11.
- Harter, S. (1999).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A developmental perspective*. New York: Guilford.
- Maslow, A. H. (1971). *Adolescents behavior and development*. Hinsale Illinois: The Dryden Press Ins.
- Jang, H., Reeve, J., Ryan, R. M., & Kim, A. (2009). Can self-determination theory explain what underlies the productive, satisfying learning experiences of collectivistically oriented Korean stud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1*(3), 644–661.
- Kahn, R. L., & Antonucci, T. C. (1980). *Conveys Over The Life Course: Attachment Roles, Social Support*. In Paul B. Battes and Orville G. Brim, Jr.(Eds.),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s*. New York: Academic Press.
- Khaleque, A. (2013). Perceived parental warmth, and children’s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personality dispositions: A meta-analysi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2*(2), 297–306.
- King, A. L. D., Huebner, S., & Valois, R. F. (2006). An ecological view of school satisfaction in adolescence : Linkages between social support and behavior problems.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1*(3), 279–295.
- Pianta, R. C. (1999). *Enhancing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 and teachers*.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eligman, M. E. P. (2004). *Authentic Happiness*. New York: Free Press.
- Thompson, R. A. (1994). Emotion regulation: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Wiley Online Library, 59*(3), 25–52.
- Thompson, R. A., Flood, M. F., & Goodvin, R. (2006). *Social Support and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In D. Cicchetti & D. J. Cohen (Eds.),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Risk, disorder, and adaptation* (pp. 1–37). Hoboken, NJ,

US: John Wiley & Sons Inc.

Vitranò, C. (2006). The Structure of Happin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ew York:

City University.

원고접수일: 2019년 8월 7일

논문심사일: 2019년 8월 15일

게재결정일: 2019년 8월 26일

#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dimensional Support and Happiness

Shin, Dong-Yun

Choi, Eun-Jung

Kim, Chung-Song

Kyongg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on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dimensional support and happiness of adolescents. To this end, the data of 339 male and female teenager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ere collected by SPSS 18.0. We applied the simple regression method to the statistic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elf-esteem is partially mediated in relation to multidimensional supportive happiness. Second, self-esteem is partially mediated in relation to emotional support of parents' happiness satisfaction. Third, self-esteem is completely medi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emotional support and happiness satisfa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n happiness by subdividing emotional support and satisfaction of parents and teachers. These findings can increase happiness by increasing parental and teacher multidimensional support in adolescents with low emotional support and satisfaction in positive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teachers, and by imbuing them with self-esteem, implying that it can facilitate their adjustment to life. On the basis of this,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presented.

*Keywords: Multidimensional Support, Self-Esteem, Happiness*